



# 캘리포니아 세금 인상이 제안되었지만 강력한 반대에 직면

지난 주 건강에 관한 의회 위원회는 이민 신분에게 관계없이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한 단일 지불자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1630억 달러로 추산되는 법안 1400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이제 의회 세출 위원회로 이동합니다. 법안의 최종 운명은 가격표를 감안할 때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헌법 수정안(하원 헌법 수정안 11)은 가구당 세금을 \$12,250 인상하여 단일 지불자 의료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의 이미 높은 세금 징수액의 약 두 배입니다. 임금 소득에 대한 최고 한계 이자율은 18.05%로 극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총수입세가 전국 최고인 2.3%로 새로 추가됩니다. 새로운 세금은 제안된 단일 지불자 의료 시스템의 연간 비용 1,630억 달러를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세금은 개별 세율에 대한 추가 요금, 누진 급여세 및 2백만 달러 이상의 사업 소득에 대한 총 수입세의 형태를 취합니다.

캘리포니아 기업들도 실업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팬데믹 기간 동안 주 기금이 고갈된 후 실업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연방 정부에서 차입해야 했습니다. 차입금의 상환은 주정부와 민간 고용주 모두에게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부채의 일부를 상환하겠다는 뉴섬 주지사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세금 인상을 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실업 보험 신탁 기금은 고용주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지만 기금이 부족할 경우 연방 정부의 저렴한 차입금에 의존합니다. 현재 적자는 주지사의 예산에 따라 약 194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기업 그룹은 추가된 세금이 임금 및 투자를 포함한 필요한 비즈니스 운영 비용에서 자금을 전용할 것을 우려합니다.